

보도시점 2023. 4. 28.(금) 14:40 이후 배포 2023. 4. 27.(목) 16:00

##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기후테크가 이끈다

- 한덕수 총리, 수퍼빈(주) 공장 준공식 참석(4.28) -

- AI 회수로봇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연
- 하루 동안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No 플라스틱 캠페인 참여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8일(금) 오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폐플라스틱 순환경제 벤처기업인 ‘수퍼빈(주)’ 준공식에 참석했다.

- 한 총리는 기후테크\*를 활용하여 폐플라스틱이 재활용 소재로 탈바꿈하는 자원순환의 전체 공정을 참관하고 기후테크 기업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 적응(adaptation)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의미함

### 《 기후테크 현장방문 개요 》

- ◇ 일시·장소 : '23. 4. 28.(금), 14:00 / 수퍼빈 아이엠팩토리(경기도 화성시)
- ◇ 참석자 : 한덕수 국무총리,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유제철 환경부 차관, 조주현 중기부 차관, 정명근 화성시장, 김정빈 수퍼빈 대표이사, 변대규 휴맥스 홀딩스 회장,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등 100명

□ ‘수퍼빈(주)’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AI 로봇으로 폐플라스틱을 선별한 뒤 자체 물류시스템을 통해 공장으로 이송, 고부가가치 재활용 소재를 만드는 공정을 구축한 기후테크 전문 벤처기업이다.

- 기후테크 중 에코테크\*에 속하는 수퍼빈은 AI 기술과 소비자 친화적 플랫폼을 이용해 폐플라스틱을 선별하고 재활용하는 기업으로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고부가가치 소재로 재창조하는 전주기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 기후테크는 클린테크(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카본테크(탄소포집, 공정혁신), 에코테크(자원순환, 업사이클링), 푸드테크(대체식품), 지오테크(우주·기상) 등 5개 분야로 구성

- 특히 AI 회수 로봇으로 개인이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거래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포인트)을 얻을 수 있도록 모델을 설계하여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심화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적응 기술을 개발하는 기후테크 기업들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 이에 한 총리는 지난 3월 기후테크 벤처 스타트업 간담회(3.22)를 통해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은 기후테크 기업의 탄소감축 기술혁신 성과를 알리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이날 한 총리는 폐생수병을 AI 회수 로봇에 투입하여 재활용하는 시연을 한 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한 플라스틱이 기후테크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손쉽게 재활용되고 고품질 제품의 원료로 다시 사용 가능하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재활용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 총리는 또한 탄소중립 실천 동참을 위해 다가오는 4월 30일 하루 동안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원데이 캠페인(No 플라스틱)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원데이 캠페인은 매월 30일마다 한달에 하루라도 3無(No 플라스틱, No 카, No 비프) 중 한 가지에 참여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운동이다.
- 한덕수 총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된 만큼 민간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테크를 활용하여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기후테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투자 확대 등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참고1】 기후테크 현장방문(수퍼빈(주) 공장 준공식) 개요**

**【참고2】 기후테크의 유형 및 세부분류**

담당 부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포용전환국	책임자	과 장 양대성 (044-200-1932)
		담당자	전문위원 황보람 (044-200-1935)



제가 지난 3월 22일날 우리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2030년까지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탄소량의 총량을 줄이는 그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우리 기후테크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김정빈 대표께서 오늘 이런 훌륭한 행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오늘 좀 모여서 향후 이러한 기후테크 기업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그렇게 참석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오기로 약속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아산에서 이순신 장군 478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도착을 했다가 여기에 오는 길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는 우리 인류가 처하는 최고의 도전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의 협력과 또 여러 가지 분야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협력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 기업과 정부와 또 국민과 그리고 여기 많이 오신 우리 언론과 NGO, 이런 국제사회와 협력을 잘하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일정한 목표로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수단으로서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기제도 있겠고, 또 기술 지원도 있겠고 정부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의무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고통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기술의 발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직도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이런 기술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이 분야에 참여하고 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로서의, 전 세계의 하나의 도전 과제이고 또 전 세계가 협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하나의 핵심 그런 에센스가 될 거다 하는 것이 제가 평소에 소신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할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퍼빈이 하고자 하는 일,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자원이 재활용되고 재순환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더 절약이 되고 줄어들 수가 있고, 특히 이러한 수퍼빈의 활동을 통해서 온 국민이 이렇게 우리가 자원을 아끼고 탄소 배출을 아끼는 이런 활동들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뼈에 느끼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김정민 대표님의 리더십 하에서 우리 테크기업 대표 기업인 수퍼빈이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하나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업이 되고 기업 활동이 되기를 아주 간곡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온 우리 아산 현충사에 있는 우리 이순신 장군의 평생의 모토, 또 이순신 장군이 당시에 우리 수군을 지휘하던 하나의 모토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크게 쓰여 있었습시다.

필사즉생 그리고 필생즉사, 무시무시한 얘기이고 끔찍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죽기로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만 때를 쓰면 반드시 죽는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회 의장으로 계시는 변대규 회장님도 바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입지전적인 기업을 일구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 김정민 대표와 우리 수퍼빈도 과거의 선배들이 따랐던 그런 좋은 성공의 길을 오늘 이어셈블데이를 계기로 그렇게 꼭 밝아 가시기를 기대하면서 감사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 참고2

## 기후테크 현장방문(수퍼빈(주) 공장 준공식) 개요

### □ 추진배경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테크 육성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과 동시에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녹색성장 동력 창출 추진
- 기후테크 중 에코테크 분야의 수퍼빈(주)을 방문, 기후테크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순환경제 확산 방안을 모색

### □ 현장방문 개요

- (일시) '23.4.28(금) 14:00 (공장 준공일)
- (방문지) 수퍼빈 아이엠팩토리 (경기도 화성시)
- (참석자) 한덕수 국무총리,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유제철 환경부 차관, 조주현 중기부 차관, 정명근 화성시장, 김정빈 수퍼빈 대표이사,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등 100명
- (특징) AI로봇으로 선별·수집한 투명PET를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재생 소재인 플레이크로 변환하는 공장  
- 플라스틱 자원순환 시스템 개발, 폐기물 절감으로 인한 탄소감축



### □ 현장방문 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14:00~1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준공식 행사<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무총리 축사</li><li>- 변대규 휴맥스 홀딩스 회장 축사</li><li>-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축사</li></ul></li></ul>
14:25~14:35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후테크 현장 참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I 회수로봇 PET 재활용 시연 및 재활용 캠페인</li><li>- 공정 참관</li></ul></li></ul>
14:35~1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장근로자 격려</li></ul>

### 참고3 기후테크의 유형 및 세부분류

◆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의미

○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5개 분야로 구성



구분	개념	세부 분류	
클린테크 (Clean Tech)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탈탄소에너지	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저장 장치, 건물전기화 가성발전소, 송배전, 분산형 에너지공장, 에너지 디지털화 원전, SMR, 수소, 핵융합 등 대체 에너지원 발굴
카본테크 (Carbon Tech)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 기술 개발	탄소포집 공정혁신 모빌리티	직접포집(DAC), CCUS, 생물학적 탄소제거 제조업 공정 개선, 탄소저감 연·원료 대체 전기차, 차량용 배터리, 물류, 퍼스널 모빌리티
에코테크 (Eco Tech)	자원순환, 저탄소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	자원순환 폐기물절감 업사이클링	자원 재활용, 폐자원 원료화, 에너지 회수 폐기물 배출량 감축, 폐기물 관리시스템 친환경 생활소비제품
푸드테크 (Food Tech)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감축	대체식품 스마트식품 애그테크	대체육, 세포배양육, 대체유, 대체아이스크림 음식물쓰레기 저감, 친환경 포장, 식품 부산물 활용 친환경농업, 대체비료, 스마트팜
지오테크 (Geo Tech)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 사업화	우주·기상 기후적응 AI·데이터·금융	위성 탄소관측, 모니터링, 기후감시·예측, 기상정보 물산업, 재난 방지 시설·시스템 기후·탄소 데이터 컨설팅, 녹색금융, 블록체인, NFT